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수 신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발 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담 당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 lgbtqact@gmail.com) 오소리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lgbtqact@gmail.com)
제 목	[입장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보내는 입장문
발 송 일	2020년 03월 26일(목), 총 12매



1. 귀 기관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2. 저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입니다(이하 ‘무지개행동’). 무지개행동은 전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40개 단체들의 상설 연대체 조직입니다.
3. 2019년 10월 22일 무지개행동은 서울시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청소년 지원사업> 담당으로 4월에 채용 되었다가, 6월과 9월에 각 퇴사한 퇴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지개행동은 2018년 말 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2019년 한해 서울시립청소년센터 ‘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 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 이 사업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현실 개선을 위해 수립된 중요한 첫 사업이고,

향후 앞으로도 서울시 내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업이 잘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파행적인 사업 진행은 일차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 큼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 기관은 결정되었고, 이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와 이해가 없는 드림센터로 진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9년 해당 사업담당자 5인이 6월과 9월에 퇴사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이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기위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서울시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해당 사업 운영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위 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4월 6일(월)까지 답변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러한 일련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물론 향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립니다.

6. 감사합니다.

첨부1: [입장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보내는 입장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보내는 입장문

1. 청소년 성소수자 사업 시작을 위한 논의 과정과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결정에서의 문제점 (2018년 11월 ~ 2019년 2월)

1) 사업 초기 준비 과정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회 권수정의원이 성소수자의 차별적인 인권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센터와 쉼터의 필요성을 느껴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입니다. 권수정의원과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는 논의 끝에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시작으로 하고, 이러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찾은 해당기관이 바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이하 드림센터)’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사업 기관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지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담은 사업 준비 계획이 필요했고, 2018년 11월 24일 정의당 서울시당 오현주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사업 계획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청소년위기지원센터 평동의 정을 대표 (이하 ‘평동’)에게 요청하였고, 평동은 25일에 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오현주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름 이후 확인한 것은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사업이 결정되었고, 변경된 사업을 드림센터가 맡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동은 권수정 의원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고, 2018년 12월 27일 권수정 의원실에서 손지현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함께 만났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평동은 권수정 의원에게 드림센터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드림센터가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드림센터의 요청이 있다면 협력할지 여부를 평동에서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정책사업의 결정과정에서 관련한 전문가 및 기관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평가해야할 지점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문가 또는 청소년과 성소수자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과정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보았을 때 결정과정이 부실했다는 평가는 필요하며, 의도와 필요성이 절실한 사업인 만큼 진행하는 주체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와 충분한 논의 속에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을 평가의 지점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로 사업 진행 과정 (2019년 2월 ~ 2019년 7월)

사업 기관이 결정된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 준비한 당시 드림센터의 백승준 센터장이 2019년 2월 7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현 우경민 센터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업은 이후부터 사업 진행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 사업담당자 채용과정

2월 9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에 채용기로 한 총 사업 담당자 6인 중 5인(1명 불참, 최초는 반상근 인력을 포함한 6인 이었으나 조정과정에서 반상근 인력은 제외됨)은 드림센터를 방문했고, 백승준 전 센터장은 이들을 센터장실로 인도하고, 우경민 현 센터장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 사업에 채용될 인력 등을 현 센터장에게 소개하는 과정이었고, 우경민 센터장은 이 사업에 참여기로 한 사업담당자에게 ‘본 사업을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 바닥부터 시작해라.’ 등 꾸짖는 듯한 표현을 하며 면담을 진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20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 논의를 위해 우경민 센터장과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담당 공무원과 그리고 채용을 약속한 사업담당자 중 팀장역할로 예정된 퇴사자 A가 함께 모였습니다. 회의 이후 우경민 센터장은 퇴사자 A에게 지금까지 채용 논의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인사권은 센터장의 권한인데 본인은 퇴사자 A를 포함한 5인에 대한 채용을 약속 한 적이 없다고 했고, 퇴사자 A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우경민 센터장은 본인의 입으로 직접 채용을 한 적이 있다고 물었습니다. 백승준 전 센터장을 통해 채용을 최종 확인한 사업 담당자들의 채용이 전면 재검토 되는 상황이었습니니다.

2월 22일 우경민 센터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가 퇴사자 A에게 도착했습니다.

… 채용에 관한 그동안 백승준 센터장님과 A 선생님과 의 구두 약속은 서울시의 승인절차가 나지 않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를 구합니다. 새로운 센터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사업한계설정과 방향을 조율한 후에 채용 문제부터 정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후 2월 27일 우경민 센터장이 퇴사자 A를 만나자고 연락하면서, 채용과 관련해 서울시와 논의가 되었고, 해당 사업 인력을 전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며, 다만 반상근 인력은 차차 진행하자고 했으며, 퇴사자 A는 알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해당 5인은 2월 중에 채용이 결정되고 바로 직무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하고 입사를 결정했으나 결국 정식 채용은 4월 2일이었습니다. 우경민 센터장은 이 사업의 논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업담당자 채용에 대한 합의 자체를 뒤엎으며, 독단적으로 채용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2) ‘사회가장자리에 있는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명칭 결정 및 센터장의 ‘성소수자’ 라는 단어에 대한 지속적인 삭제 지시 관련

이 사업의 주요 사업대상은 청소년 성소수자입니다. 사업 세부계획서에도 사업의 80~90%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2019년 3월 8

일 우경민 센터장이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의원과의 회의를 했고 ‘사회가장자리에 있는 청소년지원사업’이 결정이 되었다고 퇴사자 A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주 대상자가 청소년 성소수자이고, 세부 계획 전반이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업임에도 이렇게 사업명이 결정된 것에 대해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는 ‘사업운영체인 청소년드림센터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사업명칭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단어를 숨기려는 의도보다는 시범사업인 본 사업의 안정적 자리매김을 위한 고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관련 조례 근거가 명시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2018년 발표한 제2기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성소수자 인권정책 실행은 서울시의 분명한 인권정책 과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운영주체인 드림센터 내 여러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나 이는 4월에 채용된 사업 담당자들의 의견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사업의 진행 주체인 기관장이 세부 진행과정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 하는 행동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장의 태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경민 센터장은 ‘사회가장자리에 있는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을 대외적인 사업 홍보에서 노출하지 못하도록 했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 내 구성원과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자 했으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도 주의를 요하며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해당사업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할지라도, 향후 이 사업이 해당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경민 센터장은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사업 대상에 대한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과 이용자, 센터 관련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등을 중심으로 알리고, 장벽을 낮추려는 다각적인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편견, 혐오와 차별이 존재 합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족, 학교 및 학교 밖의 현실에서 성소수자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민과 혼란, 주변의 냉대와 배제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거나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담당자를 채용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장인 센터장이 오히려 사업담당자들에게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기관 내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단어를 삭제하거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없고, 인권적으로 보아도 큰 문제이며 차별과 다름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관련 사례

① 2019년 4월 17일

센터장과 채용된 사업담당자 총 8인은 사업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함. 센터장은 논의 상에서 드림센터라는 곳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오픈된 장소이므로 기존에 센터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 차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한명씩 데려오라고 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원센터 ‘땡땡’처럼 성소수자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고 함.

② 2019년 5월 10일

센터장은 “사무공간에서 센터에 다니는 비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성소수자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이야기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함. 이는 성소수자란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 것으로 확인이 됨.

③ 2019년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때에도, 우경민 센터장은 팀원 8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퀴어문화축제에 참석 할텐데 부탁이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부스마련이나 플랜카드 설치 등 공개적인 홍보는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의 사건을 갖고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드림센터를 위해 공개홍보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되십시오.
우경민 센터장

이 메시지의 목적은 드림센터가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말라는 것. 이 사업팀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는 목적은 행사장의 성격을 보더라도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 당사자나 관련 단체 및 모임이 참여하고 있으니, 이 행사장에 이 가장자리 청소년 사업을 잘 홍보하는 것. 드림센터 내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간이 있으니 방문을 하라는 취지의 홍보를 축제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홍보 방식도 아닐뿐더러 해당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오히려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 기보다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홍보방식임. 더불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당사자들에게는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의구심만 가중될 뿐이었음.

④ 2019년 7월 10일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가 학교에서 성평등 수업 중 '다양한 성적 지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곡해하여 50개의 성별을 인정하라 강요하였다는 식으로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에서 공론화함. 이후 여러 기독교 단체와 반동성애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하는 민원성 전화가 발생. 그로 인해 7월 10일 센터 사무실과 주간보호실 내에 성소수자 관련 스티커가 사라졌고, 주간보호실 내에 비치한 성소수자 관련 리플릿 및 정보지들이 치워졌으며, 사무실 내에 사업 담당 팀원이 소지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와 관련한 개인 소지품이 동의 없이 수거하여 치워짐.

3)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파행

해당 사업의 팀장인 퇴사자 A는 2019년 5월 9일 우경민 센터장에게 연구조사 사업 관련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센터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10일에 그 연구자가 계약을 위해 드림센터 방문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 날 10일경에 센터장은 해당 사업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연구자를 따로 불러 2019년에는 연구 사업 계획이 없고 현재로는 대상자 발굴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있던 연구사업 계획을 센터장이 사업담당자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입니다.

4) 우경민 센터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소수자를 무시하는 혐오발언 등

드림센터의 센터장은 청소년 기관의 센터장으로서 센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의 행동윤리, 소수자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이 필요한 직책입니다. 그렇지만 우경민 센터장은 이러한 센터장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윤리와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공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혐오예방교육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트랜스젠더 및 지적 장애인을 무시하는 발언, 심지어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관련 사례

① 2019년 5월 24일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및 성소수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무지개예수’의 임보라 목사님 등이 기관 방문을 목적으로 내방하여 센터장과 사업팀 8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눔. 면담 과정에서 우경민 센터장은 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혐오예방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역시 모든 청소년이라는 말로 일축하며 다른 청소년들이 청소년성소수자에게 혐오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막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함.

② 2019년 6월 8일

우경민 센터장은 청소년 트랜스젠더와 친해지기 위해 보드게임을 하면서 “목소리와 지능은 변하지 않고 평생 간다.” 는 혐오와 편견에서 비롯된 발언을 함. 이는 트랜스젠더가 갖는 신체에 있어 갖는 불화감 등을 이해하지 못한 혐오적인 표현이고, “지능”이라며 지적 장애인, 소위 학업부진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으로 학습이 지연되는 이들을 향한 무시하는 발언.

③ 2019년 6월 15일

2019년 6월 15일 해당 사업 팀원에게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사업담당 팀원에게 문자를 보내옴. 내용은 우경민 센터장이 6월 14일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고, 이에 대해 이용자는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답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데려오지는 말라고 했다고 함.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에게는 이용자와의 연락 건에 대해 알리지 않고, 별도로 센터장이 이용자와 접촉하며 홍보 등을 요청하는 행동을 함.

3. 결론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지원사업은 사업 진행 초기부터 사업 진행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의 목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갖춰야할 역량과 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부실한 논의 및 결정 과정으로 인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사무’와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가능했던 기관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실한 논의 및 결정 과정으로 인해 사업은 드림센터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이어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 진행은 이후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경민 센터장이 부임 하긴 전 사업 논의 과정에서 채용하기로 했던 5인에 대한 채용에 대해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독단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하여, 이후 사업 담당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경민 센터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외의 눈치를 보며,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사업 명이 드러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외부 사업 명은 그렇다 할지라도, 향후에도 사업을 지속해야 할 기관 내에서 ‘성소수자’라는 단어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성소수자조차 그 공간에서도 자기를 숨겨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해당 공간을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활동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는 해당 청소년 성소수자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림센터가 청소년 성소수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채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도중 우경민 센터장의 트랜스젠더 및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발언은 사업 수행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혐오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사업담당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연구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우경민 센터장은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사업과 관련한 홍보요청을 한 것은 청소년 센터의 기관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파행적인 사업 진행은 일차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 큼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 기관은 결정되었고, 이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와 이해가 없는 드림센터로 진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9년 해당 사업담당자 5인이 6월과 9월에 퇴사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기위해서는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소수

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서울시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해당 사업 운영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위 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4월 6일(월)까지 답변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러한 일련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물론 향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립니다.

2020년 3월 2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똥,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툄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40개 단체 및 모임)